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신대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교회밖 현장실천'으로 29일(목)부터 7월 1일(토)까지 사랑방공동체에 머물며 생활합니다.
- 멧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학습(미국)을 마치고 21일(수)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멧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에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2/4분기 정기회의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무림 사랑방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김범준 청년 ( 생일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6 호

2023년 6월 2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남가주의 신앙인과 교회들

많은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 덕분에 두 달여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잘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본래 캘리포니아 날씨가 더워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구름 낀 날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장거리, 근거리 여행을 하는데는 좋았습니다. 비록 맑은 하늘의 사진이 아쉽긴 했지만 더위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가주(캘리포니아 남쪽)로 불리는 LA가 큰 도시로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를 돌아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한국 간판이며 동양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회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이민자들이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숫자가 많아 간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일제 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의 주도로 독립 자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리콘 벨리에 인도인들이 많아 캘리포니아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흑인이 서로 세력을 이루면서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의미를 두고 간 장소는 리버사이드 도시에 있는 평화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산 안창호의 동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 때 건너와 오렌지 농장해서 일하면서 정착했던 정착지에 대한 자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농장의 한인 노동자들을 계몽하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도산 안창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 8월 11일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건립하였습니다. 1902년 9월 한국을 떠나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고 1903년 1월 리버사이드에 정착해 한인들을 지도하면서 공립협회와 흥사단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 USC(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건너편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주택인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에도 가보았습니

다. 현재는 한국학연구소 현판이 걸려있으며 현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교회의 숫자가 1,500여개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속에서 한인들에게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삶을 바르게 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타지에서의 한국문화를 유지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는 한식과 김치로 입맛을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이스트사이드 교회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한 교회는 최근에 급성장하며 주목을 받는 교회로 2008년 진 아펠 목사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웠는데 2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580만명의 인구 중 1퍼센트를 성도로 삼는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함 말씀과 가르침, 사역을 합니다. 대부분이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인들이 교회에서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마당에 있는 큰 스크린에 야구 경기를 틀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인교회 중에는 은혜한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교회의 목표를 선교에 두고 재정의 50%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0개국 329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의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한주간 말씀**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  
 < 신명기 4장 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8장 546장 / 20장  
 기도 :  
 성경 : 역대지하 5장  
 제목 :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다.

1. 내용: 언약궤를 안치하고 찬양하는 중에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차다.(What)
  - <문단구분>
  - 1절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완성하다>
  - 2~10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 11절~14절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다>
2. 의미: 성대하게 치러진 이 예식은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일이다.(Why)
  - 1) 성막과 언약궤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드디어 성전에 하나로 모이게 되었다.
  - 2) 예배의 자리가 다시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기뻐하였다.
3. 적용: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ow)
  - 1)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 2) 찬양 중에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자.
  - 3)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유효함을 알고 온전하게 예배드리자.

다솔이 이야기

요즘 성서일기를 통해 구약성경 '역대기상·하'의 주요 인물인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읽으며 옛날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첫아이를 결혼 후 3년 만에 갖게 되어 무척 기뻐하며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태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첫 임신을 한 것도 실감이 안 났던 터라, 무어라 부를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때 태명을 지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서 태교하면 덜 어색할 것 같다며 남편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다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듯합니다. 그 이후로 때만 나면 "다솔아"라고 부르며 임신 기간을 지냈습니다. 요즘은 태명을 지어 부르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땐 그리 많은 경우를 보지 못한 듯합니다.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름이 고민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첫 손녀라고 이름을 '김성효'라고 지어주셨는데, 막상 그동안 계속 "다솔아"라고 불러서 익숙했던 터라, 성효라는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아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출생신고를 하러 송파구청에 가서까지 망설였던 모양입니다. 그 시절엔 전화번호 인명부가 있던 시절이라서 공중전화박스에 매달린 인명부를 찾아보니, '성효'란 이름은 30여 개가 있고, '다솔'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유니크(unique)해야 한다며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김다솔'이라고 신고를 하고 왔더군요.

나중에 보니 '다솔'이란 이름은 너무 흔해서 유니크하지는 못했던 걸로 드러났네요. ㅎㅎ 그랬던 그 다솔이는 온 교회가 기도로 키워주셔서, 지금은 시집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움사랑방 임상희 권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4 : 23-24 인도자  
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33-34 인도자  
34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정재훈 목사

신명기 4 : 1-23 설교자  
560 미리내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0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창희 이재신/ 봉헌위원 : 전경희/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모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모세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아무 형상이나 손으로 깎아서 만들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거나 나타낼 수 없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브올 산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길이 알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말씀의 증거판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공동체 밭에서 감자를 캐었습니다. 줄기를 뽑고 감자를 캐서 담고 옮기고 줄기와 풀들을 모아 퇴비장에 옮겼습니다. 좀 무거워도 직접 캔 감자는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들고 갑니다. 꾸러기들이 감자를 캐 때 옆에서 요리선생님들도 감자를 캐서 간식으로 찌주셨습니다. 집으로 가져간 감자로 만든 요리가 특방에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감자를 싫어하던 ㅈㅇ이도 이제 감자를 잘 먹습니다.

멋쟁이 3학년들의 도움을 받아 갈라진 흥해를 걸어서 지나는 장면을 역할극으로 해봅니다.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가 되어 바다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이요 구원이시네' 함께 악기를 두드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단오를 맞아 책과 영상을 찾아보고 그네를 타고 씨름을 하고 부채를 꾸몄습니다. 수리취를 넣어 빚은 떡도 맛보았습니다.

월요일에 공동체학교 놀이 준비모임을 하며 같은 모듬이 된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만나고는 내내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금요일에 함께 놀았습니다. 모듬이름, 구호, 노래 모든 것을 정할 때 꾸러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준 준비 모임부터 여러 놀이와 마지막 간식시간까지 어떤 활동에서나 꾸러기들을 배려하고 챙겨주어서 큰 사랑을 느끼며 한껏 즐거워하며 놀았습니다.

바쁜 한 주가 지났습니다. ㅈㅇ이는 계속 아프고 열이 나서 약을 가지고 다녔지만 매우 오고 싶어서 계속 학교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맑고 햇빛 짙은 날을 보통은 좋은날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편견이 담긴 말일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린이학교의

에버랜드 여행은요, 흐린 날이 끝내주는 좋은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에버랜드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수십 번 정문 쪽과 후문 쪽을 오가며 나열되어 있는 어트랙션을 작전을 잘 짜서 즐기는 데요~ 교사들은 걷고 싶은데 어린이들은 뒀답니다. 이럴 때 말갈게 뜨거운 햇빛은 좋은 날씨가 아니랍니다. (함께 보조교사로 가신 부모님들께서 도보여행 보다 많이 걸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정점인 티익스프레스가 점검으로 운행중지인데도 교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친구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뽑아낼 줄 아는 어린이라 그렇겠지요. 밤10시, 퍼레이드와 레이저쇼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니 죽죽 비가 내렸답니다. 다음날은 캐리비안베이에서 축축한 실비를 맞으며 물놀이를 즐겼는데 이것도 또한 묘미였답니다. 이렇게 화·수요일을 보내고 목요일은 쉬었고 금요일은 공동체학교 놀이한마당이 펼쳐졌지요~

언니, 오빠, 동생들과 도시락도 먹고 게임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온통 여행인 날들이었지요. 다음 주부터 공부모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이니까요.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더위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생활했던 주간이었습니다. 자치회를 열어 종강발표회를 준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화진의가 5학년 멋쟁이로 함께하게 되었으며, 웃음이 만발한 여행발표회도 거쳤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해외문화체험학습을 마치고 4학년과 최기찬 선생님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반갑게 마주할 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금요일에는 꾸러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연합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코스별로, 오후에는 한데 모여 멋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멋쟁이들이 잘 살피고 재밌게 놀아주어서, 귀여운 동생들에게 좋은 추억들이 심어졌으리라 기대해봅니다. < 교사 : 이어진 >

잊지 않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또한 6월을 6.25 한국전쟁의 비극의 아픔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까마득한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너, 나 없이 가난하여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어려웠고 과자 대신 강냉이, 찹, 계피를 먹고 지금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바나나도 미술 시간에 그림으로만 그려보는 상상의 과일이었습니다. 또 전염병도 많아 학교에 가면 일렬로 줄을 서서 디티티인가(?)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쓴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삶이 고생스러워도 가족, 이웃 간에 소박한 정이 있었고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서울에 갑니다.

강변북로를 지나 남산길에 오르다 보면 우뚝우뚝 솟은 빌딩 숲 사이로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실감하게 됩니다.

짧은 세월 속에서 놀랍게 성장한 세계 속 한국으로 거듭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 근면 성실한 노력의 결과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 이 모든 풍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생명을 주시고 안정과 평안한 일상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135장, 559장, 430장

성 경 : 전도서 4장 9~12절

말 씬 : 함께 살아갑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올 여름에는 바다의 온도가 크게 오르는 '슈퍼 엘니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갑작스런 폭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잘 대처하고,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 1)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하기를
- 2) 지체 간에 평화와 화목이 있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도록
- 2)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한여름, 불볕더위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듯한 날씨로 시작한 이번 주는 기온이 오락가락하며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식구들의 일상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모두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많은 공동식구들이 밭일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본격적인 장마 전에 거두어야 할 작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두콩으로 시작하여 배추, 당근까지 수확의 기쁨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을 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긴 장마 동안 공동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